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질환치료, 보조기 사용, 의료시설 이용현황

김은엽¹, 서권영², 정우석², 김재영³

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피부영상의학연구소, ²고려대학교 안산병원,

³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생명과학센터

key0227@nate.com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and Disease Treatment of the Elderly, Current Status of Use of Orthosis, and Medical Facilities

Eun-Yeob Kim¹, Kwon Young Suh², Woo-Suk Jang², Jae-Young Kim³

¹Research Institute for Skin imag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²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³Core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요약

본 연구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인만 있는 가정 8268명을 추출하였다. 평상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8188명 3그룹("평소에 건강하다" 4107명(50.2%), "그저 그렇다" 2578명(31.5%), "건강하지 않다" 1503명(18.4%))으로 구분하였다. 평소 건강인식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고혈압, 당뇨병의 만성질환과 퇴행성관절염 등의 치료를 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평소 건강인식이 높은 그룹이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지 못할수록 사용빈도가 높았고, 마찬가지로 청력과 썩기 보조기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일상생활 불편함 역시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지 못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게 된 요즘의 고령화 시대에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가 관심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1. 서론

우리나라는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중 독거노인은 5명중 1명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 독거노인은 특히 배우자와 함께인 노인에 비해서도 신체 상황 뿐만아니라 외로움, 우울감 과 같은 정신적 건강도 좋지 못하며 이는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 [2,3]. 국내 연구결과 2020년 COVID-19 시기에 대구, 경북지역 거주 노인대상 결과 우울증의 정도가 평균 9.9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4]. 이처럼 노인 특히 독거노인은 고독감과 외로움이 더 크고, 도움을 받을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2].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단절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서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 대상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강상태에 따라 현 질환의 치료현황, 의료시설이용 정도, 우울감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2차 가공하였다. 전체 10097명에서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족 8268명을 추출하였다. 이중 노인의 평상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8188명 3그룹("평소에 건강하다" 4107명(50.2%), "그저 그렇다" 2578명(31.5%), "건강하지 않다" 1503명(18.4%))을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IRB(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 제2020-36호) 승인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2.2 자료분석방법

통계분석을 위하여 Micro-soft EXCEL로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그룹에 따라 Chi-square test 또는 Kruskal-Wallis 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평소 건강인식과 질환치료 현황

평소 건강인식과 질환치료 현황 결과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43명은 고혈압이 있는데도 치료하지 않았고, 당뇨병 역시 두 그룹 20명이

치료를 하지 않았다.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은 평소 건강상태 거강 30명 그저 그렇다 29명 건강하지 않다 37명은 치료를 하지 않았고, 골다공증 역시 건강하다 15명 그저 그렇다 13명 건강하지 않다 18명 치료를 하지 않았다. 요통, 좌골신경통은 건강하다 49명 그저 그렇다 29명 건강하지 않다 35명이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성 난청도 건강하다 6명 그저 그렇다 28명 건강하지 않다 27명이 치료를 하지 않았다. 우울증은 건강하다 1명 그저 그렇다 4명 건강하지 않다 6명이 치료를 하지않았다.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도 건강하다 3명 그저 그렇다 4명 건강하지 않다 4명이 치료를 하지 않았다.

3.2 평소 건강인식과 의료기관 이용현황

평소 건강인식과 의료기관 이용현황에서 지난 1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여부 결과 건강하다 2371명 그저 그렇다 1969명 건강하지 않다 1281명이 이용하였고, 지난 1년간 요양병원 입원 여부는 거강하다 1명 그저 그렇다 7명 건강하지 않다 8명이 이용하였다고 요양병원 외 입원 여부는 건강하다 145명 그저 그렇다 126명 건강하지 않다 219명이 이용하였다고 했다.

3.3 평소 건강인식과 보조기 사용 및 일상불편함

평소 건강인식과 보조기 사용여부 결과 시력 보조기 사용은 건강하다 2121명 그저 그렇다 1420명 건강하지 않다 847명이 사용하고 있었고, 청력 보조기는 건강하다 353명 그저 그렇다 330명 건강하지 않다 241명이 사용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시력의 불편함은 평소 건강인식이 건강한 그룹은 990명 그저 그렇다 942 건강하지 않다 764명이 불편하다고 하였고, 청력도 건강하다 599명 그저 그렇다 713명 건강하지 않다 603명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4. 결론 및 고찰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결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현재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보조기 등의 사용빈도도 높았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도 역시 치료나 적합한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지 나이가 들면 노화가 일어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 하기에는 백세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의 사회적 환경에서 생각해 볼 때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강관리가 매칭되어 관리되거나 치료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노인들이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의료시설 접근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연락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숙도도 노인들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

실에서 보건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차체와 사회적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들에게 가족들이 비동거라도 연락과 방문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로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신속하게 적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J.A. Oh, "Activation plan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elderly living alone." Weekly Issue. Vol. 9, pp, 1-8, 2017.
- [2] Statistics Korea, Publication of 「National Quality of Life 2020」 repor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561.
- [3] S.I. Nam, J.J. See, E. Ye and J. Chae, "Meaning in lif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ld age: A comparative study of living alone and not living al one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4, No. 2, pp. 163-192, 2019. <https://doi.org/10.21194/kjgsw.74.2.201906.163>.
- [4] B.D. Suh, and K.H. Kwon, "Impacts of the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n the South Korea community in COVID-19 pandemic,"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46, No. 1, pp. 54-63, 2021. <https://doi.org/10.21032/jhis.2021.46.1.54>
- [5]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20 Suicide Prevention whitebook.file:///C:/Users/user/Downloads/2020_%EC%9E%90%EC%82%B4%EC%98%88%EB%B0%A9%EB%B0%B1%EC%84%9C_%EC%A4%91%EC%95%99%EC%9E%90%EC%82%B4%EC%98%88%EB%B0%A9%EC%84%BC%ED%84%B0.pdf.